

삼성, 구독서비스 등 구매혜택 강화 역대 최대 사전판매 흥행 이어간다

갤럭시 Z8·워치9 공식 출시

Z8 시리즈, 144만대 사전판매 기록
폼팩터 다양화·AI 첨단기능 주요
한 달간 액세서리 할인쿠폰 등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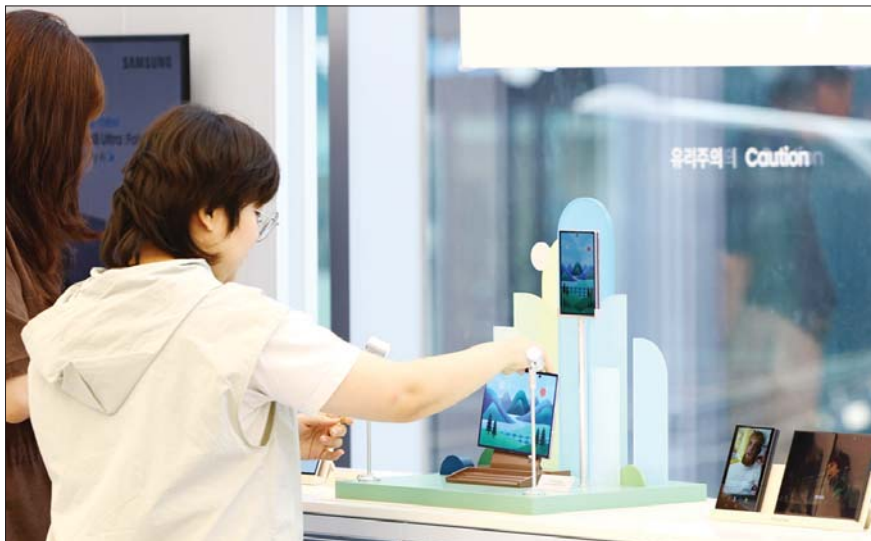
삼성전자가 8세대 폴더블 스마트폰을 7일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 역대 갤럭시 스마트폰 사전판매 최고 기록을 세운 여세를 몰아 폼팩터 다양화와 AI 기능을 앞세워 폴더블 대중화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을 오는 7일부터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은 지난 7월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된 사전판매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사상 최대인 144만대가 판매됐다. 사전 구매 고객 10명 가운데 약 7명이 폴드8 시리즈를 선택했으며, 삼성닷컴 구매 고객의 절반은 1030세대였다. 특히 폴드8·폴드8 울트라는 구매한 1030 여성 고객은 전작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번 사전판매 실적은 2019년 '갤럭시 노트10'이 세운 138만대 기록을 7년 만에 넘어선 것이다. 갤럭시 Z 시리즈 기준으로 전작인 '갤럭시 Z 폴드7·플립7'의 104만대를 크게 웃돌며 폴더블 스마트폰의 대중화 흐름을 이어갔다.

삼성전자는 8세대 갤럭시 Z 시리즈를 통해 사용자 성향에 맞춘 다양한 폼팩터



지난 4일 서울 삼성 강남을 찾은 시민들이 갤럭시 폴드8 및 플립8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를 제시했다.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는 203.1mm 대화면과 215g의 경량 설계를 바탕으로 멀티태스킹과 생산성을 강화했고, 펼쳤을 때 두께는 4.1mm로 역대 폴드 시리즈 가운데 가장 얇다. 2억 화소 메인 카메라와 폴드 시리즈 최초의 50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도 적용했다.

'갤럭시 Z 폴드8'은 201g의 무게와 193.2mm 메인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영상 시청과 게임, 독서 등 콘텐츠 이용 경험을 높였으며, 4800mAh 배터리와 5000만 화소 듀얼 카메라를 탑재했다.

'갤럭시 Z 플립8'은 무게 180g, 두께 6.1mm로 역대 플립 시리즈 가운데 가장 얇고 가볍다. 새롭게 추가된 '미러뷰(Mirror View)' 기능을 통해 별도 거울 없이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출시되는 '갤럭시 워치 울트라2'와 '갤럭시 워치9'도 사전판매에서 전

작보다 두 자릿수 판매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갤럭시 워치 울트라2'는 여성 구매 비중이 전작 대비 약 15% 확대됐다.

'갤럭시 워치 울트라2'는 800mAh 배터리와 최대 5000니트 밝기의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아웃도어 환경에서 활용성을 높였고, '갤럭시 워치9'은 생체 징후와 심장 건강 점수, 일일 유산소 부하, 신체 체력 지수 등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8월 한 달간 신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워치 할인 쿠폰과 액세서리 할인, AI 구독 서비스 등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신제품은 한국을 시작으로 미국, 영국, 인도, 일본 등 100여 개국에 순차 출시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선박엔진 빅3, 실적개선 속도

친환경 선박 전환 등 호재 작용
생산량 확대·고가 수주물량 인도

국내 선박용 엔진업체들이 조선업 호황과 친환경 이종연료(DF) 엔진 확대에 힘입어 외형과 수익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다. 공장 가동률을 높여 생산량을 늘리는 한편 고가 수주 물량 인도를 본격화하며 실적 개선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6월 업계에 따르면 주요 선박용 엔진사들은 지난 2분기 저가 수주 물량이 줄고 고가 물량 매출 반영이 늘면서 수익성이 개선됐다. HD현대마린엔진은 지난 2023년 저가 물량 비중이 1분기 12%에서 2분기 5%로 낮아진 반면 고가 물량 비중은 13%에서 40%로 확대되며 매출 1281억원(전년 동기 대비+29.1%), 영업이익 313억원(+79.2%)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도 24.4%(+6.9%포인트)로 올랐다.

HD현대중공업 엔진기계 사업부도 DF 엔진 매출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영업이익 2364억원(+28.5%), 영업이익률 24.8%(+6.9%포인트)를 기록했다. 한화엔진 역시 2024년 이후 확보한 고가 물량 인도가 본격화되며 영업이익 379억원(+12.1%), 영업이익률 10.5%(+1.8%포인트)로 개선됐다.

이 같은 수익성 개선의 배경에는 친환경 선박 전환 추세가 자리 잡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 규제 강화로 DF 엔진 수요가 증가하자 선주들이 가격보다 운항 안정성과 실선 레퍼런스를 우선시하면서 고가 물량 수주가 가능해졌다

는 분석이다.

친환경 DF 엔진 확대는 엔진업체의 생산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DF 엔진은 전자제어 및 이종연료 공급장치, 안전 설계가 추가돼 공정이 복잡하고 제작 기간이 길다. 이로 인해 HD현대마린엔진의 연간 생산능력은 200만BHP에서 2024년 140만BHP로 30% 조정됐으며, 한화엔진도 346만8000BHP에서 지난해 336만BHP으로 약 1.2% 감소했다.

그러나 수치의 생산능력 조정이 실제 감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선업 호황으로 주문이 증가하자 설비를 풀가동하면서 실제 생산량은 늘어났다. HD현대마린엔진의 생산실적은 2023년 63만BHP에서 지난해 124만7000BHP로 늘었고, 가동률은 약 32%에서 지난 1분기 91.7%로 상승했다. 한화엔진 역시 생산 실적이 같은 기간 319만1000마력에서 338만5000마력으로 6.1% 증가했으며, 지난 1분기 가동률은 100.5%를 기록했다.

최근 분기 실적 개선은 장기적인 수익성 개선 흐름 위에서 나타난 결과다. 고가 DF 엔진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엔진업체들의 수익성도 중장기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공장 가동을 통한 물량 증가가 실적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고가제품 믹스 개선이 이익의 폭을 결정짓는 단계"라며 "고가 이종연료 엔진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됨에 따라 이 같은 수익성 상승 구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LS일렉, 글로벌 ESS 인프라 시장 공략 박차

전력변환장치 'G2' 양산 돌입

LS일렉트릭이 차세대 에너지저장장치(ESS)용 전력변환장치(PCS) 'G2' 양산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ESS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고효율·고밀도 제품을 앞세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LS일렉트릭은 지난 5일 충남 천안사업장 DC팩토리에서 구자근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G2 초도 출하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구 회장은 G2 전용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생산계획과 품질관리 현황을 점검

했다. 그는 "천안 DC팩토리는 직류(DC) 생태계 전반에 걸친 LS일렉트릭의 기술 경쟁력을 증명하는 핵심 전초기지"라며 "무결점 품질을 기반으로 완벽한 제품을 생산해 DC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ESS 시장을 선도해 나가자"고 말했다.

G2는 LS일렉트릭이 해외 시장을 겨냥해 개발한 차세대 ESS용 PCS다. 배터리에서 저장된 직류 전력을 교류로 변환하거나 교류 전력을 직류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수냉식 냉각 기술을 적용해 기존 공랭식 제품보다 발열 제어 성능과 내구성을 높였다. 설치 면적을 줄인 소형 구조를 채택해 공간 활용도와 운영 효율성도 개선했다. /원관희 기자 wkh@

가족단위 방문객 북적... "디자인·성능, 중국차 편견 넘어서"

르포

지리자동차 지커 전시장

평일에도 상담 테이블 대부분 채워져
사전예약 고객 170만원 상당 혜택 제공

"보조금은 안 나오지만 차는 한번 타보셔야 합니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강동구 더리버몰 지리자동차그룹 프리미엄 브랜드 지커 전시장. 평일 오후인데도 상담 테이블은 대부분 채워져 있었다. 매장 한쪽에서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차량 내부를 살펴보고, 다른 쪽에서는 직원이 출고 일정을 설명하느라 분주했다. 길 건너에는 경쟁사인 BYD 전시장이 자리했지만, 지커 매장 안의 분위기는 예상보다 활기찼다.

지커는 중국 지리자동차그룹 산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로 같은 그룹 계열사인 볼보의 기술력을 공유하며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을 겨냥해 설립됐다.

지난해 12월 한국 시장 공식 출범을 알린 지커는 출발부터 약재를 한꺼번에 떠안았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0원, 개별 소비세·취득세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됐고,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 적용도 받지 못한다. 전기차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혜택 세 가지가 모두 빠진 셈이다.

이 같은 약재에도 소비자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다. 매장 관계자는 "평일



강동구 더리버몰에 위치한 지커 전시장에서 고객들이 딜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승혁 수습기자

15일, 주말에는 50명 정도가 방문하고 시승 예약도 평일 7~8건, 주말에는 20건 안팎 들어온다"고 말했다. 국내 첫 모델인 '7X'는 8월 말부터 고객 인도를 시작한다. 인증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지며 일정은 다소 밀렸지만 "국내에 들어온 차량은 상당수 확보돼 있다"는 설명이다.

혜택 공백은 현장에서 '170만원'이라는 숫자로 매워지고 있었다. 사전예약 고객에게는 70만원 상당의 차량용 냉장고 옵션과 스타게이트·자동문 할인 등 약 17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 관계자는 "보조금 수준의 혜택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보조금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지커가 받지 못하는 혜택은 적지 않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고 보조금은 최대 580만원, 지자체 지원까지 더하

면 지역에 따라 1000만원을 넘는다. 세제 감면까지 감안하면 체감 차이는 훨씬 커진다.

소비자들의 계산법은 엇갈렸다. 차량 교체에 위해 방문한 이상규(49) 씨는 테슬라와 BYD, 지커를 비교 중이었다. 그는 "보조금이 예전처럼 500만~1000만원씩 나왔다면 당연히 많은 쪽을 선택했겠지만 지금 수준이라면 포기할 만하다"며 "셋 중에서는 디자인과 실내가 가장 마음에 들어 구매를 거의 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 BYD 아토3의 국고 보조금은 145만원, 테슬라 모델3 RWD는 186만원 수준이다. 보조금과 세제 혜택, 화재보험이 모두 빠진 상태에서도 지커는 디자인과 상품성으로 소비자를 붙잡고 있다.

/양성운·이승혁 수습기자 ysw@

CJ대한통운, 도심 자율주행 물류실증 나선다

10월 대구서 화물운송 사업 운영

CJ대한통운이 대구광역시, 지능형자동차부품연구원과 협력해 오는 10월부터 대구권 미들마일 구간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 사업을 정식 운영한다.

6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존 고속도로 중심 자율주행 운영 경험을 도심 구간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실제 물류 운영 환경에서 자율주행 기술과 운영 역량을 동시에 검증하는 데 의미가 있다.

시험사업에는 실제 화물을 적재한 11.5t 화물차가 대구권역 내 CJ대한통운 서브터미널 4곳을 순환 운행한다.

다음 달에는 운행 스케줄 준수 여부와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운행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실제 화물을 운송하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운행 구간은 신호교차로와 차량·보행자 등이 혼재하는 도심 환경으로, 기존 고속도로 중심 자율주행보다 복잡한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다.

CJ대한통운은 도심 주행 과정에서 다양한 교통 상황에 대응하는 자율주행 기술과 실제 물류 운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